

일본 최대 한국사찰 세운다

오사카 관음사문화회관

일본 최대 규모의 다목적 불교 문화회관으로 한국사찰이 건립된다. 이 불사는 멀고도 가까운 한일 관계의 20세기를 접고 21세기를 여는 시점에서, 일본인 스님이 한국인에게 보낸 뜻으로 흔쾌히 시주해 이뤄진 불사여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일본 오사카 이쿠노구 관음사(주지 원연)는 5월 13일 대지 360평에 지하 3층 지상 9층으로 연건면적 1080평 규모의 초현대식 사찰과 문화회관 건립 상량식을 봉

했다. 오는 12월 5일 낙성법회를 예정으로 하는 관음사 문화회관은 건축비 3백억원으로 지상 1층에 전통 한국건축양식으로 법당 5층에 조성되고, 2층에 장의예식장 3층에 문화 전시공간이 들어 서고, 3층부터 9층까지 불교의식 및 남골당(지하)이 자리잡는다. 9층에는 부처님 진신사리탑이 모셔지고, 지하 3층은 전용 주차시설로 활용된다. 특히 이쿠노구는 구민 4명당 1명이 교포로 일본내 가장 많은 교포가 살고 있는데다 중심가에 자리잡은 관음사 문화회관은 바로 뒤에 코리아타운이 위치

법당-남골당-문화공간 등 조성 1080평 규모 12월 5일 낙성법회

해 명실상부한 한국인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상량법회에는 백양총림 방장 서용스님을 비롯 조계종 고려사 주지 회정, 보현사 주지 소연, 태고종 법성(금강사 총무), 일봉종 영신(금강사 주지) 원효종 화광(연경사)스님 등 범종단차원의 현지 스님들과 일본 정토종 승운사 주지 안井스님, 재일본한국인단 총성인단장 각 부장과 신도대표 등 2백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경과보고 법어 상량 정근 부처님사리진전의 순으로 진행됐

다. 이 자리에는 이 불사의 화주인 故요시무라(吉村大微)스님(99년 1월 입적)의 영정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서용스님은 법어를 통해 "관음사를 장엄하게 건설해 훌륭하게 수행해서 인류 평화 행복의 도량이 되기를 확신하고 기원한다"고 실하고 축사에서 불사 원만성취를 축원하는 '자비무궁'이라는 후회를 썼다.

이 불사는 한국민단이 공식 추천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일본 오사카=워영란 기자 (ryyui@buddhania.com)



○오는 12월 5일 낙성법회를 갖는 일본 관음사 문화회관. 지하 3층 지상 9층의 골조공사를 마치고 5월 13일 상량식을 가졌다. 원연은 주지 원연스님.

불교복지 통신망구축 서비스

조계종 복지정보지원센터 사업목표 보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2일 세종문화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열고 불교 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이하 복지정보지원센터) 개인보고를 통해 설립목적과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해수 정보지원센터 팀장은 '정보화 시대의 종교사회복지'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복지정보지원센터는 △사회복지 관련정보 수집 및 체계적 관리 △복지정보의 효율적 서비스를 위한 통신망 구축 △불교 복지프로그램 개발 보급 △불교계 사회복지 전문인력 육성 △고급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서비스 수요자간의 긴밀한 연결체계 구축 △지원 및 후원 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정보지원센터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www.mahayana.or.kr)를 개설, '불교사회복지포럼'과 '전문가 포럼', 프로그램 연구 개발을 위한 '프로

그럼 개발 포럼' 등과 고계복지기관과 시설인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실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집산시스템을 이용한 정보망이 구축되면 자원봉사조직이나 복지시설 등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불교복지자를 포함한 종교계 복지사업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꾀하고 나아가 민간복지정보망과도 연계함으로써 불교복지 이미지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복지대회에서 승가원, 소책자마을,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직지사, 진각총이 불교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불교계 복지활동을 지원해온 임인철씨(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장)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 서울사회복지과 및 고용안정평가 감사패를 받았다.

한명우 기자

송광사 "대중공의 운영"

문도회의서 결정... 25인 총림운영위 구성

승보총찰 승천 송광사(주지 현지)가 총림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총림의 인사, 불사 등 일체의 사중일을 대 중공의에 의해 운영하겠다고 밝혀 총림운영에 있어 일대 모범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송광사는 12일 제789회 보 조국사 중재를 지내고, 방장 보성스님을 비롯하여 주지 현 지스님, 종회위원 현봉 범종 영조 스님, 현문(약수암주지) 지묵(김상사 선원 유나) 현묵(목우회 회장) 스님 등 80여 명의 문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와 불사문제를 사중 제반 일을 논의 결의하게 될 25인 총림운영위원회(위원장 현지)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송 광사의 인사와 불사추진 등이 공의보다는 일부 스님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 앞으로는 모든 문과를 초월, 누구든 총림에 애정을 갖고있는 뜻있는 스님들에게 사중 소임을 맡기기로 함에 따라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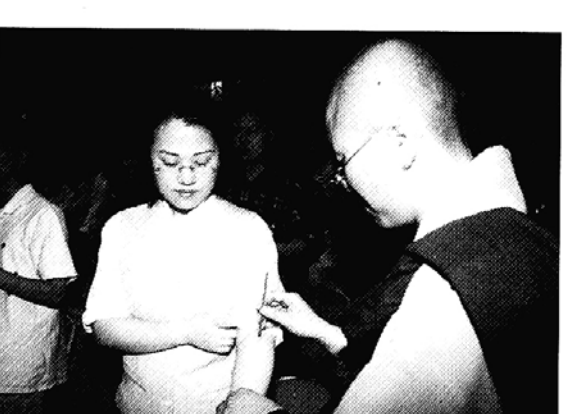
현거 및 임명도 공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비대하게 추진 돼온 불사도 앞으로는 규모있고 계획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방장 보성스님을 중심으로 하는 산중공의체제를 확립하고 송광사 선방을 널리 개방하여 승보총찰의 면모를 일신키로 했다.

총림운영위는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취합하여 20일 대구 망월사에서 첫 토론회를 갖고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정해 송 광사 법보보성원명 스님 등 송 광사 원로스님들의 자문을 거쳐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송광사의 한 스님은 "그동안 주지직이 일부 스님제자들로 이어져 왔던 전례를 파기하고 송광사가 대중 공의에 의해 운영될 것이다"며 "일로스님 등 모든 대중들이 마음을 합했기에 문도화합도 이뤄지고 앞으로 총림에 좋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nia.com)



동국대생 1천명 수계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11일 동국대 중앙당에서 '전 동국인 춘계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다. 1천여명이 오계를 수지한 이날 수계식은 녹원스님(동국대 이사장)을 전제화상으로 이뤄졌다. 녹원스님은 "수계를 받는 것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것이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jygang@buddhania.com)

새시대불교포럼 12일 출범

초대회장 박승원씨

한반도 불교문화의 부흥을 위해 총무원과 교구본사 단위로 '문화복지재단'을 만들어 새로운 포교의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12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사부대중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새시대 불교포럼' 창립기법 포럼에서 제기됐다.

'21세기 한국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조성렬(성관대 강사)씨는 "새로운 민족문화 창달자로서의 불교를 만들기 위해

승가를 지식인 집단화하고 불자지식인들을 조직화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창립식에서 초대회장에 선출된 박승원씨(시스템연구소장)는 "앞으로 지식인이라는 타이틀보다는 핵심에 치중하여 한국불교가 발전의 길로 나아가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8월 20일 회장선출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7일 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조영환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9명의 선거위원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6월 17일 선거공고 △7월 20일 개원 명부 확정 공고 △8월 3~5일 후보자 등록 △8월 6~19일 선거운동기간 △8월 20일 입시대의원 총회 및 당선공고.

전국신도회 조직강화 지회·지부 등록 공고

조계종 전국신도회는 6월 30일까지 기존 지부 조직과 신규 지부 및 시·도단위, 지회, 직장 및 직능단체, 단위 신행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하 단체의 등록을 받는다. 기존 조직의 개편과 신규 조직의 등록을 통해 산하 조직으로 편입된 단체는 사단법인 명의로 등록증을 수여받고 사단법인의 법적 효력을 받게 된다.

"김태복소장 불공정재판 시정"

종교편향위 기자회견

종교편향대책위원회는 "육군보통감찰부는 지난 9일 포교인장과 국방부장관의 면담후 신중히 검토하여 선고하겠다는 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공소사실에도 없는 자료를 제공해 오보를 쓰도록 했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유감표명을 담은 공문을 국방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교편향대책위원회는 "육군보통감찰부는 지난 9일 포교인장과 국방부장관의 면담후 신중히 검토하여 선고하겠다는 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공소사실에도 없는 자료를 제공해 오보를 쓰도록 했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유감표명을 담은 공문을 국방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방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위어드 김희경 회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02)396-2736 H.P. 016-228-2358

25~27일 적지사서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

20차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적지사 등에서 열린다. 21세기 정신세계를 주도하는 불교도의 사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법요식(26일, 적지사) 세미나(26일, 적지사), 20주년 기념법회(27일, 서울 롯데호텔), 동학사 관문사 봉원사 조계사 불교전래사은비(부여) 참배 등으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지하스님(조계종 종회의원)과 미와마이시 소오겐 스님(일-한불교 부이사장, 대정대학

교수)이 각각 기조연설을 하며, 토론을 벌인 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공동선언문에는 △한일 불교문화교류의 20년 회고 △역사 문화 지정학적으로 한일 두 나라는 이웃임을 확인 △21세기 정신문화를 주도할 불교인의 역할과 사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대회에 일본측에서는 정토종 일련종 진언종 조동종의 종정공 스님들을 비롯 90여명, 한국측에서는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조불련, 불추위에 방북초청장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하)이 지선(민중화합불교추진위 상임추진위원장) 명진(상임집행위원장), 성조(공공집행위원장) 스님, 유지원사무총장, 김기창(보광사신도회 후원회장) 씨 등 5인에게 이달 25일부터 6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초청장을 보냈다. 남한불교계의 공식적인 북한방문이 교계 최초로 이뤄지게 됐다. 초청장을 받은 불추위는 5월 25일 북경을 경유하여 방북기로 하고 평양시와 묘향산 보현사 백두산등 북한사찰

지역 중심으로 답사하겠다고 밝혔다. 불추위는 방북기간중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 남북불교회담을 갖고 △남북불교인사 상호교류 방문추진 △남북한 합동법회 추진 △북한지역내 사찰및 불교문화유산 현장조사및 자료집 발간 △남북 불교학술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국불교연맹(의장 배영진)도 조선불교도연맹이 3일 8·15법회와 토론회및 강연회를 남북공동으로 갖자는 제안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사찰운영에 사부대중 참여"

재가연대 심포지엄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사찰운영은 한국불교의 청정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사)는 1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사찰운영 실현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용철교수(중앙승가대)는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사찰운영방안 모색"을 통해 "사찰운영방식은 철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본을 두고 목표는 한국불교 발전에 바탕을 두고 사부대중 참여의 사찰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도교육과 신도역할 증대, 신도조직 형성, 스님의식 고취가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재정투명화 사례를 발표한 최연(봉은사

사무장)씨는 "봉은사의 경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교역직 종무원회와 재가종무원이 참여하는 종무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한다"며 "무엇보다도 예산안에 따른 지출과 수입과 지출의 경리업무 분장, 수입원의 다변화 추구, 신도회 위상강화등의 개선책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사찰운영의 확산, 정착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한 정용정씨(재가연대 사무처장)는 "교단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분규가 계속되는 원인이 삼보장제가 투명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며 "사부대중 참여의 사찰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총본산인 조계사를 모범사찰의 모델로 창출하고 재가신도의 지위확대, 사찰운영위원회법의 보완, 캠페인 전개, 총무원의 행정 지도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사찰주변 특별 방법활동

경찰청 초파일맞이

경찰청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일선 경찰에 공문을 보내 전국 각 사찰의 방화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그동안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사찰방화가 잇따랐다는 점을 지적하고, 25일까지 보름동안 전국 각 사찰주변에 대한 특별방법 활동을 지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전국 사찰 주변에 특별방법조를 편성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주민의 95% 이상이 개신교

주민의 95% 이상이 개신교를 믿는다는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도 기독교가 전래된 코스가 있었기 때문에 강한 전통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유달리 심해 불자들이 배겨나질 못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백령도 주민부대내 해병6여단 내에 있는 철탑을 불교와 개신교가 함께 쓸 정도로 종교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유달리 개신교계는 철탑을 함께 쓰기 위해 관련 목사들을 퇴출시키면서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것

백령도의 종교편향

3백여명은 심경가 야외마당에서 점등식을 봉행할 수 밖에 없었다. 법회를 마친 뒤 백령도 장 관사 앞마당에서 석가모니 불 정근을 하며 공개 참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김성일 백령도 행정사무소인 심경가 내부공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점등행사를 허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당일 오전 면

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해 등불을 밝히기 위해 설치한 전기선을 사전통보도 없이 강제로 해체하고 문까지 걸어 잠근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일부 관공서의 개신교인 직원은 불사에서 제공해 온 장학금조차 "사원이 주는 것이니 받지 않겠다"면서 반박했으며, 목사들이 공공연히 부처님 오신날 법회나 거리행진(물을 뿌리는등)을 방해해 왔다는 것이다. 종교간의 화합을 유도하고 갈등을 막아야 할 자치단체장이 오히려 종교편향을 자행한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인천광역시등 삼급기관은 즉각 불교계에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김기민 기자 (jgkim@buddhania.com)

뉴스 & 뉴스

금융감독원 불교회 창립

금융감독원 불교신행모임이 출범했다. 금융감독원불교회(회장 홍순우)는 15일 2층 강당에서 대승사 주지 법성스님을 중명법사로 2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가졌다. 금융감독원불교회는 지난 1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된 이후 30여 명의 불자들이 한국은행불교회의의 도움으로 결성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nia.com)

경기도 포교사련 19일 창립

경기도포교사련협회(회장 김동균)는 19일 수원 북문노인회관에서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을 중명법사로 창립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는 금강반야회, 수원교도소·구치소직인불심회, 수원불교청년회, 운전불자회, 경기불교대학총동문회, 수원포교당거사회, 수원시약사불자회 소속 회원 등 3백여명이 참석해 경기 지역 포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김동균회장은 "불교계가 약한 경기지역의 포교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자"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nia.com)

봉은사 '서원의 사랑나누기'

봉은사(주지 원해)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서원의 사랑 나누기' 행사를 '서로 사랑의 마음을 나누자' 캠페인을 전개한다. 22일 오전 11시 경내에서 열리는 '서원의 사랑 나누기'는 관공을 마련 불자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서원대에 꽃서원 문구(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매일 108배를 하겠다 등등)를 뽑아 그 서원을 다음 해 초파일까지 행하도록 권장하는 신라시대부터 전해오는 접합법회를 현대화한 행사다. 이 행사는 초파일을 국민단체로 승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시범행사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nia.com)

불추위 봉축기념 토론회

민중화합불교추진위원회는 20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민중화합과 통일'을 위한 세가지 과제: 이산가족, 탈북자, 그리고 장기수'를 주제로 봉축기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산가족'에 대하여 박찬봉(통일부 인도과장)씨, '탈북자'에 대해 한창권(자유북한연합회 회장)씨, '장기수'에 대해 김성만(민중회의 정책위원장)씨가 주제발표한다. 토론회는 지현정(진각종 사회복지재단) 정안숙(불교운동본부 사무국장) 혜조스님(불교장기수추진회 운영위원장)이 참가한다.

김원우 기자

시각장애인 한마당 잔치

대광명인불자회(회장 박석규)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20일 오전 11시에 대광명인불자회 법당에서 '시각장애인 한마당 잔치'를, 30일 오전 10시부터 대구 남산1동 신라대방에서 '녹음도서 제작기념마련 일일차집'을 개최한다. 대광명인불자회는 수익금으로 제작된 점자경전과 녹음테이프를 전국 각 사찰에 장애인 편의시설물 비치하고, 시각장애인에게도 배포할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복지타운 기금마련 바자회

승가원(대표이사 현성)은 힐성 종합복지타운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26~28일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대바자회를 개최한다.

97년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이번 바자회에서는 의류, 생활도자기, 불교용품, 음식 등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며, 수익금은 전액 복지타운 건립기금으로 충당된다. 승가원은 복지타운 건립을 위해 연등달기 캠페인과 사찰 및 개별 후원자 발굴 등의 후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종합복지타운은 현재 토지 형질변경 인·허가 관련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7월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02)928-0750

한명우 기자

5년째 매주 무료급식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손정수)는 19일 구서동 전철역에서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5년째 매주 목요일마다 무료급식을 실시해온 총동문회는 이날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경로잔치를 겸한 무료급식 행사를 열었으며, 8백여명의 노인들이 참가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총동문회는 매주 4~5백여명분의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동문회원 20여명이 당번을 정해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